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고난을 유익으로      성경: 시편 119편 65-75절

Tag:

65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66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7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69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70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73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4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75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지난 주 설교에 사용했던 단어 수정?

영적감성

영적 감별력 혹은 영성.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다.

감사의 여러 기능; 인사말기능. 은혜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기능. 윗 사람을 섬기는 예절로서의 기능.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신앙 고백이다.

감사의 신앙고백은 물질적 심리적 유익을 받고 그 수혜를 베푼 대상에게 수혜에 마땅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고백으로서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유익이 없어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게 많은 뜻이다.

또한 감사는 긍정적 태도의 결과이다. 그래서 유익이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감사는 감사를 낳게 한다. 우리들의 감사는 그 대상이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질을 헤아리시고 상을 주신다. 감사의 진정성과, 그 마음의 생각의 가치관과, 감사에 대한 표현의 예절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입술의 열매를 보시고 재앙을 철회시키기도 하신다. (니느웨의 경우-회개를 포함함, 백부장의 하인이 낮게 된 이야기. 또는 재앙을 축소 시키시든지, 혹은 도리어 복이 되게 한다.-수로보니게 여인의 긍정적인 태도)

본문에서 다윗은 고난을 유익으로 해석하였다. 고난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고, 손해나게 한다. 그래서 고난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킨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조사한다. 일단 더 이상 손해가 나

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취한다. 또 다시 고난이 닥치더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한다. 손이 부족하면 도움을 청한다. 그리고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연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말씀에서 위로를 얻는다. 미리 그 말씀대로 했더라면 이런 소란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난이 유익이라는 신앙고백이 나왔던 것이다.

놀랍게도 인류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 나간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불행한 사람이 십계명만 잘 지켜도 그의 삶은 수년 내에 좋아진다.)

우연한 고난은 없다. 고난과 재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다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만회할 기회를 주셨는데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재앙이 갑자기 자기에게 닥친다고 생각된다.

### 65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재앙이 작은 이유는 크게 한번이 아닌 작게 여러번으로 나뉘어서 임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감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이란. 그래서 대부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댓가 보다는 훨씬 덜한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재앙이 나뉘어 내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앙 후에 오는 여진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선행으로 통해서 재앙을 상쇄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를 채워서 내게 임할 재앙들을 미리 없애는 것이 성실한 태도이다.

### 75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이 성실하시다는 것은 결코 임해야 할 재앙을 잊어버리시거나 넘어가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왜냐면 공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앙을 피하는 것, 재앙을 방지하는 것, 재앙을 극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으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다. 재앙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66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수고를 해야 한다.

고난 당하자마자 감사 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감사는 인사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고난의 원인을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때는 학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연구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다. 연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다시 연구해야 한다. 고난이 사라질 때까지.

이런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감사가 된다. 그러면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 이것이 성도의 감사이고 성도의 복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